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5)

급 어 근 효

急 於 近 效

신속한 효과를 내기에 급하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세상에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있다.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정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에 미국의 이른바 관세 정책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미국의 국내 실업자의 증가, 경기의 하락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붙여서 미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에 불법체류자를 내쫓는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면서 모든 정사는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검찰개혁, 이른바 내란종식, 노동개혁, 원전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위에 몇 개의 특검을 추진 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현제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혹 ‘실을 바늘하리에 묶어서 옷을 꿰매려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바늘하리에 실을 묶어 옷을 꿰매려는 성급함은 정사를 담당한 사람이 예전에도 일상적으로 벌여 온 실수였다.

요즈음 속사치통감에서 1330년대의 원 왕조의 어려운 상황과 그를 해결하려는 정사를 담당한 사람들의 조치를 읽고 있다. 1329년에 황제인 문종(文宗)은 당시의 대학자인 우집(虞集)에게 묻는다. ‘어떻게 기근(饑饉)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요즈음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나라 이재명정부의 급진적인 정책도 따지고 보면 ‘백성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니 원 문종이 당면한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우집이 원 문종에게 한 말은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다. ‘평화로운 날이 오래 되어 사람들의 마음은 안안(晏安)한데, 뜻을 가진 사인(士人)들은 효과를 내기에 급급하니 원망 섞인 말이 일어납니다.’라고 한다. 한마디로 정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빨리 효과를 내기 위하여 실을 바늘하리에 매어 옷을 꿰매려고 하여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것이다.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은 정책의 추진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당

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를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많은 나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직접 대항할 힘이 없으니 참고 있을지는 몰라도 미국을 원망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다 장악한 민주당이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니 그에 대하여 반발하며 원망하며 이를 묶어 ‘국민의 힘’은 강경하게 저항하여 여의도는 항상 시끄럽다.

다시 원대 문종시절로 돌아가서 우집의 말을 들어 보자. 그는 원말의 기근이라는 큰 문제를 놓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큰 재난이 있는 나며지이니 올바른 군자(君子)가 정치를 하여 새롭게 만들 시기입니다.’라고 한다. 이 말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실업자의 증가, 산업성장의 둔화, 물가의 급등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재난이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조금만 올바르게 정치를 한다면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집은 각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사(人事)를 주문한다. ‘만약에 한 두 명의 인술(仁術)을 가지고 민사(民事)를 아는 사람을 과건하라.’는 것이다. 자기의 출세나 이익을 위한 사람이 아닌 백성을 위하여 어짊을 가진 위에 백성들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을 뽑으라는 말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하지 않던가? 전 정권의 실패도 따지고 보면 인사의 실패에서 온 것이고, 이번 정권의 성패도 인사에 있을 것이다.

우집의 이러한 권고에 문종은 옳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나라를 어렵게 만든 귀족세력들을 제치고 민생(民生)정책을 펴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황제의 주변에는 황제로부터 신임을 더 얻어내기 위하여 빠르게 효과가 난다는 정책부터 들이치는 사람뿐이었다.

그 뒤로 우집은 황제에게 말한다. “예전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으나 어려워서 다 떠난 곳을 이용하여 성곽(城廓)을 확충하고 여러(闕里)를 수리하고 전지의 밭고랑이 구획(溝洫)을 조치하고 견무(畝畝, 田地)를 제한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얇게 하고, 그중에 상잔(傷殘)하고 노약(老弱)한 사람을 불러들이면, 점차 그 힘을 가지고 이를 처리한다면 멀리 떠난 사람들이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점차 도착할 것

이며 봄에 밭 갈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는데 모두 도움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1, 2년 사이에 거두어 가져가지 말고 요역(徭役)을 시키지 않고 봉역(封域)이 이미 바르게 되면 친구는 서로 바라보며 구제하고 사면(四面)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은 고르고 가지런하게 바야흐로 올바르게 되고 가지런히 되며 분명하게 하는 것에 법도(法度)가 있다면 삼대(三代)의 백성들은 장차 공허(空虛)한 들판에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종은 우집의 견해에 칭찬을 보냈다. 정말 훌륭한 견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우집은 한결을 더 나아가서 문제에게 제의한다. “다행스럽게 신에게 한 군(郡)을 빌려주신다면 시험적으로 이 방법을 가지고 시험해보게 하시면 3, 5년 사이에 반드시 조정에 보고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집은 자기가 제시한 정책을 몸소 실천해 보일 수 있으니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맡겨 보는 것이 당연하건만 문종은 우집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문종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우집에게 물었고 우집은 대책을 제시하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여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는데 왜 이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였을까? 문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들은 문종에게 말한다. ‘저 우집은 이것을 핑계로 조정을 떠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집은 오래전부터 조정에 있지 않으려고 벌써 사직을 하려고 했었지만 문종이 만류했는데, 그냥 떠나려고 하면 안 되기에 이 핑계를 댔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 우집이 실행하겠다는 것을 반대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혹 우집의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기가 뒤처질 것을 염려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여간 당장 눈앞에 빠른 효과가 난다는 말로 호도하여 황제의 관심을 끌어 보려는 분위기는 고쳐지지 않았다. 그 결과 원왕조는 서서히 기울었고 40년 뒤에는 탁발승 출신의 주원장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만다.

어떤 일이든지 바늘하리에 매어서 옷을 꿰매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바늘하리에 실을 매어 옷을 꿰매려고 하니 성공하는 일이 쉽겠는가?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노마지지(老馬之智)

늙을 로. 말 마. 어조사 지. 지혜 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으로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징이 있음. 또는 저마다 한가지 재주는 있다는 말.

유래

관중과 습봉이 환공을 따라 고죽국(孤竹國)을 칠 때 불에 가서 겨울에 돌아오다가 길을 잃었다. 관중이 가로되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할만하다” 하고 늙은 말을 풀어 그 말을 따랐다. 또한 산중(山中)을 진군하고 있을 때 물이 없어 갈증이 나자 습봉이 “개미는 겨울이면 남쪽에 살고 여름이면 산의 북쪽에 산다. 개미집의 높이가 한치라면 그 땅 밑 여덟 자를 파면 물이 있다” 라고 말하여 그 밑을 파보니 물을 얻을 수 있었다. 비슷한 말로 노마식도(老馬識途), 노마지도(老馬知途)가 있다. 이 이야기는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를 의미한다.

노이무공(勞而無功)

힘쓸 노. 말이을 이. 없을 무. 공로 공.

애는 썼으나 애를 쓴 보람이 없다.

유래: 장자(莊子)에 나오는 얘기. “옛날 주나라의 방식을 노나라에 행하려는 것은 수고롭기만 할 뿐 아무 성과도 없을 것이다.” 순자(荀子)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막연해서 갈피를 잡기 어렵고 시끄럽게 떠들어 대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맡은 하지만 요령이 없고 애는 쓰지만 공이 없다.” 관자(管子)에는 “옳지 못한 것에 편 들지 마라. 능하지 못한 것을 강제하지 마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르지 마라.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노기충천(怒氣衝天)

성낼 노. 기운 기. 부딪힐 충. 하늘 천.

성난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

노발대발(怒發大發)

성낼 노. 일어날 발. 큰 대.

몹시 화를 내며 크게 성을 내다. 분노가 극에 달해 폭발하듯 화를 내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 격렬하게 표현될 때 사용된다.

뇌성벽력(雷聲霹靂)

우레 뇌. 소리 성. 벼락 벽. 벼락 력.

천둥소리와 벼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

노인개지(路人皆知)

길로. 사람 인. 모두 개. 알 지.

길가는 사람 모두 다 안다. 즉 세상 사람이 모두 안다. 뻔히 들여다 보이는 속셈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쓰이는 말 이는 사마소지심 노인개지(司馬昭之心 路人皆知)라는 말에서 나왔다. 즉 사마소가 멀지 않아 위나라를 삼킬 것이라는 그 속마음은 길가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권영섭 화백

만화 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에서 축사



권영섭 화백이 9월 25일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야 의원 83명이 회원으로 구성된 ‘만화 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에서 축사했다.

권영섭 화백은 축사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6월 25일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 주최로 만화가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날 만화가 미술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완전한 문화 장르로 결정되는 안건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나 저는 그날의 기쁨과 감격과 주도하신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 의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제 생일이 6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이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서영석 의원님과 김승수 의원님의 주도로 83명의 의원님들이 회원이 되어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으로 발족되어 너무 기쁘니

다. 다시는 중단되는 일이 없이 회원도 배가되었으니 많은 일을 하여 만화문화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권영섭 화백은 지난 25여 년 동안 안동권씨 종보 매호마다 한결같이 4단 짜리 만화를 연재해 왔다. 권영섭 화백((사)한국원로만화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화의 역사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친애하는 100만 죽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덕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치 마시고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숭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중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궁중회화연구소)
- 규격 : 가로 107cm, 세로 180cm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안동권씨 대중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

2025년 10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9.1. ~ 9. 25. 총 납부자 11명 총 80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병선(서울 동대문) 30,000	권부총(전남 고흥) 30,000	권오성(부천) 30,000	권오진(서울 강북) 30,000	권정욱(인천) 30,000
권중구(안동) 30,000	권현(경북 영주) 30,000	권혁경(경주) 30,000	권혁조(충북 충주) 30,000	권형태(안동) 30,000
대전 참의공중종 50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죽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대중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